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께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기적의 생명력    성경: 사도행전 2장 1-17절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 11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

더라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2:1-17)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20:22)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인사말 다음으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목적있는 말씀이다. 숨을 내 쉬며 말씀 하셨다. 제스처(바디랭귀지를 사용하심)를 보이시면서 (성령은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 순간 숨이 차서 숨을 내쉴게 아니다.

-왜 부활하신 첫날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셨을까?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건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7:39)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아직 부활하여 승천하지 않으셨으므로.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7:38)

-나를 믿는 자는;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들. 하  
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임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

성경에 이름과 같이(성경에서 일러준대로, 가르쳐준 대로, name의 의미가  
아님.)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사  
44:3)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라 (사55:1)

-이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외치신 말씀이다.(실로암 행사가 있을 때;광야의  
쫓겨진 반석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였음.)

-쫓겨진 반석 사건을 통해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계시하심.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나며, 기적의 생명력을 얻게 된다.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  
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1:5)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다. ‘몇 날이 못되어’ 이  
말씀은 짧게는 10일 이내에, 길게는 10년 이내에 성령이 오신다는 뜻인데,  
참으로 10일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니라 (행1:8)

-성령은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다. (성령은 사람이 아니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되면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우리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성령을 부르거나, 유인하거나, 오시도록 강제할 수 없다.

오히려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규칙이 딱히 있지도 않다. 성령께서 임의로 임하신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일이 지난 주일이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니 오순절이었다.

(그러므로 요즘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른다.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며, 믿는자들 각 사람의 육체에 임하시는 분이시지 특정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령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영이시다. 누구를 지명하여 그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혹 다를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한 인물이 성령이거나 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성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언제 얼마나 임하시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정답이라면,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감동되셔야 한다는 뜻이다.

성령은 사람들의 꾀에 속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랑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모략의 영이시다. 정의의 영이시며, 자유의 영이시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며, 가장 예민하시며 섬세하시고 생명력과 창조력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감동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해야 한다. 최소한.

그러나 성결한 삶은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예의에 지나지 않는다.

성결한 삶이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면 오히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결해지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꼭 집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자기인식이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되겠구나!’하는 자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율2:13) 중심 통회 사건

현재, 한국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더 가까이 나아가자. 더 성실하게 나아가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버리자. 그것이 죄악이라면 끊어버리자. 그것이 아집이라면 버려 버리자. 그것이 미련이라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욕심이라면 포기하고, 그것이 자기연민이라면 부끄러워하자.

(특별히 요즘 한국은 부끄러움이 많은 세대이다.

부끄러울 때 철판을 까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부끄러울 때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